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 연구

이일례*

1. 들어가는 말

성서의 가난한 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사회·경제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가나안 정착 이전 이스라엘의 반 유목민적 생활양식에서 심한 빈부의 격차는 실제로 불가능하였다.¹⁾ 그리고 가나안 정착 초기 이스라엘은 균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형성했다. 그러나 왕정 수립 이후 관리계급과 대지주들의 출현으로(호 8:14; 12:9; 암 3:15; 5:11) 가난한 민중이 속출하게 되었다(사 3:14-15; 10:2; 11:4; 암 4:1; 5:12; 시 82:3-4). 특별히 포로기 이후 바벨론에서 귀향한 이스라엘인들은, 가장 비옥한 농토를 차지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옛 식민주의자들로부터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 빈민으로 전락하였다.²⁾ 이처럼 성서의 가난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정치·사회·경제적 구조가 산출한 착취의 희생자들이며 소외된 자들이었다.

이스라엘은 빈곤 문제에 직면하여 율법을 통해 가난한 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며 사회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³⁾ 이스라

* Ruhr-Bochum Universität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학술연구 교수. ilryelee@gmail.com.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962).

1)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칠곡: 분도, 2001), 21.

2) Ibid.

3) 이에 관해서는, 이일례, “계약법전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를 위한 미쉬파팀과 데바림의 어울림: 출애굽기 21장 2절-23장 12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7 (2021. 9), 276을 보라.

엘의 예언자들은 가난의 원인을 착취의 결과로 규정하며 사회의 부패한 단면을 날카롭게 비평한다(암 2:6-8, 4:1-4, 사 5:8-10 등). 그들은 인간을 수익성을 위한 도구로 삼는 비인간화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고발한다.⁴⁾ 이처럼 구약성서는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숙고와 성찰을 통해서 가난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시편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은 누구일까? 특별히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의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시편의 탄원시의 구조는 하나님-탄원과 원수-탄원 그리고 자기-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요소는 서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시의 삼중구조 속에 함의되어 있는 주제를 파악하고, 가난한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탄원의 신학적 의미를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⁵⁾ 여기서 이 논문의 목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가난한 자의 탄원을 구성하는 탄원의 주체, ‘가난한 자’와 탄원의 표적이 되는 ‘원수’에 관한 히브리어 용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탄원의 수신자 ‘하나님’에 관한 이해 또한 탄원의 상황이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번역은 매우 일률적이다. 물론 히브리어 용어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 관한 히브리어 용어를 그대로 음역할 수 없고, 음역하더라도 그 용어의 음역이 성서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용어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제안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기존의 번역과 같이 일률적 번역을 수용할지라도 각각의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신학적 의의를 분석하여, 가난한 자의 탄원을 이해하는 유용한 하나의 자료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특성상 전체적으로 개인 탄원시 중에서 개별 시편을 선택하여 논지를 입증하는 상세한 분석과 석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탄원이 나타나는 시편을 수집하고, 여기서 개인 탄원시의 세 요소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번역된 가난한 자와 원수의 개념에 관한 각

4)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37: 이사야는 새 다윗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새 사회 질서를 세우리라고 예언한다(사 9:6; 53:9).

5) H. Gunkel,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172: 궁켈(H. Gunkel)은 그의 연구서에서 양식비평으로 시편의 장르를 나누고, 전체 150편의 시편 중 1/3에 해당하는 시편을 개인 탄원시로 분류한다; C. Westermann, *Der Psalter* (Stuttgart: Calwer Verlag, 1967), 47: 베스터만(C. Westermann)은 약 50개의 시편이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함성국, 『시편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60. 참조. H. Gunkel,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F.-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J. G. Plöger and J. Schreiner, eds., *Die Neue Echter Bibel* 29 (Würzburg: Echter, 2002).

각의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 이해에 관한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분석하여 가난한 자의 탄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이를 근거로 이들의 유기적 관계가 품고 있는 신학적 의의를 찾고자 한다.⁶⁾

2. 개인탄원시의 가난한 자들

구약성서에서 ‘가난한 자들’에 관한 연구의 특징은 가난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가난한 자들의 종교적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관련하여 종교적 현상을 강조하는 랄프스(A. Rahlfs)는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עניים)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특정한 무리, 즉 헌신된 야웨의 추종자 집단으로 규정한다.⁷⁾ 특별히 그는 가난한 자들을 포로기 이후에 형성되기 시작한 ‘경건한 자들’의 무리로 규정하면서, 이교도의 정신에 물든 ‘악인들’(רשעים)과 대치되는 인물들이라고 이해한다.⁸⁾ 또한 꼬시(A. Causse)는 가난한 자들을 공동체와 관련하여 이해한다.⁹⁾ 그는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가 특정한 이념과 전통을 소유하고 예배와 영감을 함께 나누는 영적인 형제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꼬시(A. Causse)는 시편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와는 달리 브롱거(H. A. Brongers)와 플뢰그(J. van der Ploeg)는 가난한 자들을 어떤 무리나 공동체로 보는 해석을 반대한다.¹⁰⁾ 비르케란트(H. Birkeland)는 가난한 자를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무리나 공동체로 보는 해석을 반대한다.¹¹⁾

6) 특별히 본 논문에서 가난한 자들에 관한 용어의 함축적 의미를 분석하는 경우, 시편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에 관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가난한 자를 지칭하는 용어, 아니(אני)와 에브론(אֶבְרֹן)과 달(דָּל) 그리고 헬레바(הֶלְבָּא)를 다룸에 있어 양식비평상 시편(the whole psalter) 내에서 개인탄원시 뿐 아니라 감사시, 찬양시, 교훈시 등의 본문을 참조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 과제로 남긴다.

7) A. Rahlfs, *Ani und 'Anaw in den Psalmen* (Oslo: Dybwad, 1892);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362; H. J. Kraus, *Theologie der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Verlag, 2003).

8)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179. 불경하고 신앙을 저버린 악인들 앞에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 의식을 가진 자들로 이해하는 경향을 형성한다.

9) A. Causse, *Les "pauvres" d'Israel* (Strasbourg : Librairie Istra, 1922), 81;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62.

10)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62.

11) H. Birkeland, *Ani und Anaw in den Psalmen* (Oslo: Dybwad, 1892), 25.

한편 가난한 자들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가난한 자들의 법적인 보호를 침해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적 폐단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학자들도 있었다.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민중이 속출하기 시작한 시기를 왕정 수립 이후로 보는데, 이 시기에는 관리계급의 출현과 이들과 결탁한 거상들과 대지주들이 구축한 도시 문화는 빈부의 격차를 가속화 한다.¹²⁾ 이들이 형성한 부르주아 계급은 착취하는 온상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로 전락하였다.¹³⁾ 여기서 정치·사회 구조로 인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은, 동시에 법의 보호를 침해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라우스(H. J. Kraus)는 가난한 자는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자로서 ‘권리 없는 자’이며 어떠한 영향력이나 신분을 갖지 못한 자들이라고 강조한다.¹⁴⁾ 폰 라트(G. von Rad)는 법적 지위가 열악한 가난한 자들은 야웨 앞에서 자신을 경건한 자들로 고백하는 자들이었다고 주장한다.¹⁵⁾ 크뤼제만(F. Crüsemann)은 가난한 자들과 법적 상황의 밀접한 관계를 ‘실제적인 고난’의 재구성을 통해서 설명한다. 사회구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법의 보호 밖으로 추방하며 법적인 ‘권리 없는 자’로 전락시킨다고 이해한다.¹⁶⁾ 그는 이를 가난한 자들의 이차적인 고난이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은 정치·사회 구조로 인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한 자들이며, 법의 보호를 침해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로 이해할 수 있다.

2.1. 가난한 자들에 관한 용어의 함축적 의미

시편에서 ‘가난’은 중요한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난한 자들에 관한 표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별히 시편에서 가난과 가난한 자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אֲנִי)와 예브온(אֶבְוֹן)과 달(דָּל) 그리고 헬레바(חֶלְבָּה)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시 9:12, 18[13, 19]; 10:1, 8[2, 9]; 12:5[6]; 14:5[6];

12)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38. 서인석은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민중이 속출하기 시작한 시기를 왕정 수립 이후로 산정한다.

13) Ibid.

14)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66.

15) G. von 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Band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413; G. von Rad, *Predigt-Meditat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80.

16) F. Crüsemann, “Im Netz. Zur Frage „nach der eigentlichen Not“ in den Klagen der Einzelnen”, R. Albertz, F. W. Golka and J. Kegler eds., *Schöpfung und Befreiung* (Stuttgart: Calwer Verlag, 1989), 139-148. 때에 따라서 가난은 사회적 소외와 질병이라는 이차적인 고난을 야기한다; A. Erman, *Die Religion der Ägypter* (Berlin: De Gruyter, 1934), 140.

18:27[28]; 22:24[25]; 34:6[7], 10[11], 17[18]; 35:10; 37:14; 40:18[17]; 41:1[2] 51:17[18]; 68:10[11]; 70:5[6]; 72:2, 4; 74:19; 82:3; 86:1; 94:6[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109:22; 113:7; 132:15; 140:12[13]).¹⁷⁾ 먼저 가난한 자에 관한 용어를 살펴보자.

2.1.1. ‘עָנִי’의 의미

시편에서 ‘עָנִי’(시 9:12, 18; 10:2, 9; 14:6; 18:27; 68:10; 72:2; 74:19; 82:3)와 ‘עֲנָנִי’(시 9:13, 19; 10:12, 17-18; 22:27; 25:9; 34:3; 69:33; 147:6; 149:4)는 가난한 자를 지칭한다. ‘עֲנָנִי’는 ‘עָנִי’의 아람어적 표현이다. ‘עָנִי’는 ‘가난’하고 ‘빈곤’한 상황에 처한 곤고한 자를 의미한다.¹⁸⁾ 일반적으로 이들은 경제적 물리적 빈곤한 상태에 있는 가난한 자를 나타낸다(참조. 시 34:6[7]; 37:14; 레 25:35-38; 신 23:21-22; 신 24:6.10-13.17; 겔 18:7; 암 2:8; 욥 29:12-17). ‘עָנִי’와 ‘עֲנָנִי’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고아와 과부를 일컫는 경우 사용된다. 동시에 이들은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자, 곧 ‘권리가 없는 자’(rechtlos)로 나타나고 있다.¹⁹⁾ 이들의 의미는 예언자 전승의 영향을 함축하고 있다.²⁰⁾

한편 ‘עָנִי’는 ‘고난당하는 자’, 실존적 상실 속에 있는 자들을 표현할 때에 사용된다(욥 30:16, 27).²¹⁾ 특별히 ‘עָנִי’는 사회적인 위기(시 10:2), 핍박(시 10:2), 불의로 인한 억울함(시 10:7, 8)을 경험하는 가난한 자를 말한다. 가난한 자는 악행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압박받고 학대받는 자들이다(시 10:2). 악인들은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피를 부리며(시 10:2),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채운다(시 10:3).²²⁾

2.1.2. ‘אֲבִיּוֹן’의 의미

시편에서 가난한 자를 나타내는 ‘אֲבִיּוֹן’은 특별한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시 9:19[18]; 12:6[5]; 40:18[17]; 70:5; 72:4; 86:1; 109:22; 132:15). 물론 ‘אֲבִיּוֹן’은 먹을 것이 없는 자(시 132:15), 사회경제적으로(sozialökonomisch) 가난한 자를

17) 이 논문에서 시편의 장절 표기는 한글 성경의 것을 먼저 적고 히브리 성경 BHS의 것은 바로 뒤 []안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반복적인 []안에 표기된 히브리 성경의 장절은 생략한다.

18) H. Weißmann, “Armut”, *TRE* (Berlin; New York: 1979), 72; F.-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J. G. Plöger and J. Schreiner, eds., *Die Neue Echter Bibel* 29, (Würzburg: Echter, 1993), 213.

19)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66.

20) H. Weißmann, “Armut”, 72.

21) E. S. Gerstenberger, “עָנִי”, *ThWAT VI* (1977), 260.

22) 이일레, “가난한 자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신정론 이해: 시편 10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2 (2021. 12.), 195.

의미한다(시 37:14; 132:15).²³⁾ 동시에 ‘אַבְיָוֹן’은 강탈당한 자(참조. 사 3:14), 땅도 없고 다른 소유물도 없는 자이며, 모든 것을 빼앗긴 자를 의미한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나타내는 용어는 다른 중요한 신학적 개념과 서로 맞대어 비교되는 현상을 특징으로 관찰할 수 있다. ‘אַבְיָוֹן’의 경우를 살펴보자.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들의 사회 비평 속에 ‘אַבְיָוֹן’으로 표현하는 가난한 자들은 ‘צָרִיק’와 유비를 이루며 ‘의인’의 개념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암 2:6).²⁴⁾ 또한 시편에서 ‘אַבְיָוֹן’은 ‘חָסִיד’와 유비를 이루며 ‘경건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시 12:2). ‘אַבְיָוֹן’은 ‘עָנִי’와 동시에 사용되어(אֲנִי עָנִי וְאַבְיָוֹן/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가난한 자의 고난을 강조한다(시 9; 10).²⁵⁾ 여기서 특별히 ‘עָנִי’와 동시에 언급되고 있는 ‘אַבְיָוֹן’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을 강조하며 그 구원은 가난한 자의 물리적인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방나라들로부터 가난한 자의 미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다룬다. 이는 이스라엘 정치적 종교적 고난이 불러온 가난을 의미한다.

2.1.3. ‘לָוִי’의 의미

가난한 자들에 관한 표현 중에서 ‘לָוִי’은 약한 자, 천한 자, 가난한 자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시 40:17[18]; 70:5[6]; 72:4; 86:1; 109:22). 예언자 전승에서 가난한 자를 나타내는 표현이다.²⁶⁾ 또한 ‘לָוִי’은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עָנִי)를 열거하기 위해 사용되며 총체적인 가난의 상황을 표현한다(시 82:3). 그리고 ‘חָלָלָהּ’ 역시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지칭할 때 쓰인다(시 10:8, 10, 14).²⁷⁾ 특별히 ‘לָוִי’은 가난한 자를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 ‘אַבְיָוֹן’을 동반하여, ‘가난하고 궁핍하다’로 나타남으로써 가난의 상황을 강조한다(시 40:17[18]; 70:6[5]; 72:4; 86:1; 109:22).

이처럼 시편에서 가난한 자들에 관한 히브리어 용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가난한 자에 관한 용어 분석에서 가난한 자에 관한 인식과 통찰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시편에서 가난한 자들은 물리적 빈곤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다(시 9:12, 18; 35:10; 37:14; 40:17; 70:5; 74:21; 86:1; 109:22). 2) 동시에 그들은 악인들의 착취와 공격(시

23) E. S. Gerstenberger, “עָנִי”, 260.

24) Ibid. 예언자 전승에서 나타나는 가난은 지혜문학에서 가난과 많은 부분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25)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70-371.

26) Ibid., 362.

27) Ibid.

10:2-3, 4, 9, 13)과 사회적 악행에 노출된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자, 곧 ‘권리가 없는 자’들이다.²⁸⁾ 3) 시편에서 가난한 자에 관한 용어는 서로 다른 용어를 동반하여 가난의 상황을 강조하며, 예를 들면 ‘אַבְיָוִן’은 ‘עָנִי’와 동시에 사용되어(וְאַבְיָוִן עָנִי וְאָנִי/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가난의 처참한 상황을 돌출시킨다. 가난에 관한 용어를 서로 이중적으로 사용하여 가난의 상황을 강조한다(시 9:12, 18; 35:10; 37:14; 109:22; 113:5-9). 또한 다른 중요한 신학적 개념과 서로 맞대어 비교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אַבְיָוִן’으로 표현하는 가난한 자들은 ‘צָרִיק’과 유비를 이루며 ‘의인’의 개념으로 중요하게 나타난다(암 2:6). 시편에서 ‘אַבְיָוִן’은 ‘חָסִיד’과 유비를 이루며 ‘경건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시 12:2). 이처럼 가난한 자의 탄원을 구성하는 탄원의 주체, ‘가난한 자’에 관한 히브리어의 우리말 번역은 매우 일률적이며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위해서 제시한 것처럼 각각의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신학적 의의는 다양하다.

2.2. 가난한 자들의 자기 탄원

시편에서 가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물리적 빈곤을 고백하며 탄원한다(참조. 시 34:6[7]; 37:14; 132:15; 144:13-15; 145:15; 147:8; 레 25:35-38; 신 23:21-22; 신 24:6, 10-13, 17; 겔 18:7; 암 2:8; 욥 29:12-17). 이처럼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물리적 현상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탄원한다(시 9:12, 18; 35:10; 37:14; 40:17; 70:5; 74:21; 86:1; 109:22; 113:5-9). 그러나 그들의 탄원은 물리적 현상에 제한되지 않는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은 자신을 마음이 상한 자라고 고백한다(34:17[18]; 109:22).²⁹⁾ 약하고 천하며 모든 것을 빼앗긴 가난으로 인한 상실감을 탄원한다(시 40:17; 70:5; 72:4; 86:1; 109:22).³⁰⁾ 그들은 악인들의 중상모략으로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자로서의 고통과 괴로움(시 82:3)을 탄원한다(시 14:32, 35).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인 소외를 탄원한다(시 37:14).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법의 보호 밖으로 추방당하며 법적인 권리를 빼앗긴 상실감으로 “심장”에 큰 타격을 받은 아픔을 탄원한다.³¹⁾ 그들은 가난으로 고난당하는 아픔과 실존적 상실을 탄원

28) F. -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I*, 85; 참조. K. Seybold, *Die Psalmen: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Kt, Bd.15 (Tübingen: Mohr Siebeck, 1996), 133; 이일레, “시편 109편 6-19절은 시인의 기도인가? 원수들의 저주인가?” 『구약논단』 24 (2018. 9.), 180.

29)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71.

30) 이일레, “시편 109편 6-19절은 시인의 기도인가? 원수들의 저주인가?”, 174.

31) 이일레, “히브리산파들의 저항과 ‘시편 언어’의 친연성(親緣性)”, 『구약논단』 23 (2017. 12), 50.

한다.³²⁾ 여기서 가난한 자의 고통이 가중될수록 그들의 자기-탄원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은 ‘자기-탄원’에서 ‘원수-탄원’으로 나아간다.

3. 가난한 자들의 ‘원수’

가난한 자들의 탄원에서 ‘원수’는 신학적 논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주제이다.³³⁾ 시편에서 다른 어떠한 언어의 영역도 원수들에 대한 묘사처럼 입체적이고 다각적인(facettenreich) 영역은 없다. 가난한 자들의 원수들은 누구이며, 원수 탄원의 독특한 신학적 위치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시편연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궁켈(H. Gunkel)은 양식비평으로 시편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규명한다.³⁴⁾ 여기서 그는 시편에 나타나는 원수에 관한 많은 표현들이 — 동물에 대한 직유와 은유적인 표현과 또한 그 외에 잔인하고 난폭한 성격을 띠고 있는 표현들 — 예배와 충돌하며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인식한다.³⁵⁾ 여기서 궁켈은 시편에 나타나는 이러한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 장르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심리적인 관점을 제안한다. 궁켈은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개인 탄원시의 원수에 관한 많은 표현을 실제적 현상이 아닌 시인의 정신적인 세계(Bildwelt)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빙켈(S. Mowinckel)은 개인 탄원시에서 나타나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원수들의 행위가 시편의 삶의 자리인 ‘예배’와 불협화음(Dissonanz)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³⁶⁾ 모빙켈은 이러한 불협화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탄원에 나타나는 “고난당하는 자들”과 “원수”의 대립구조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편의 원수들을 악령과 마술사와 외부의 낯선 행위자로 규정한다.³⁷⁾

32) G. von Rad, *Predigt-Meditation*, 80.

33) N. Lohfink, “Was wird anders bei kanonischer Schriftauslegung? Beobachtung am Beispiel von Ps 6”, *JBTh* 3 (1988), 36; T. Collins, “Decoding The Psalms. A Structural Approach to the Psalter”, *JSOT* 37 (1987), 41-60.

34) H. A. Neumann, *Zur neueren Psalmenforsch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Abt, 1976), 29.

35) H. Gunkel, *Die Psalmen*, 181.

36) S. Mowinckel, *Psalmen Studien 1: Äwän und die individuellen Klagepsalmen* (Videnskapsselskapet: Kristiania, 1921), 113; *Psalmen Studien 6: Die Psalmdichter* (Videnskapsselskapet: Kristiania, 1924), 61.

37) 참조. P. Riede, *Im Netz des Jägers: Studien zur Feindmetaphorik der Individualpsalmen*,

새로운 중요한 단계는 키일(O. Keel)의 원수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다. 그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비평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삶의 과정에 종속되어 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³⁸⁾ 그는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교의 범주의 전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원수들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³⁹⁾ 키일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강한 공동체 결속(Gemeinschaftsbezogenheit)의 중요한 현상을 강조하며, 이를 원수들에 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는다.⁴⁰⁾ 그는 원수들에 관한 표현이 가난한 자들이 소속된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추상적인 측면 — 그들의 영적인 세계 — 또한 중요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바옥스(M. Bauks)는 키일의 견해를 수용한다. 그는 원수에 관한 표현들을 심리적이거나 또는 인간론적 전기문적인(biographisch) 해석의 도식(Deutungsschema)을 통해서 이해한다.⁴¹⁾ 바옥스는 탄원시의 전면에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와는 달리 원수들에 관한 테마가 탄원(논쟁)의 질과 절박성을 위한 정신적인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²⁾ 야노브스키(B. Janowski)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원수가 가난한 자들의 개인적인(사적인) 적대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그는 원수들의 위협은 죽음의 위협이 되는 혼돈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⁴³⁾

여기서 시편의 장르사적인 분리 독립(Ausdifferenzierung)을 연구해 온 리데(P. Riede)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묘사들을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것을 관찰하였다. 그는 성서고고학과 고대 조형미술연구(ikonographisch) 분야와 종교사적 동물학(zoologisch)의 인식을 통해서 원수에 관한 표현을 단

Wissenschaftliche Monograph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Band 8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5.

38) O. Keel, *Feinde und Gottesleugner: Studien zum Image der Widersacher in den Individualpsalmen*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69), 34.

39) Ibid.

40)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03), 124.

41) M. Bauks, *Die Feinde des Psalmisten und die Freunde Ijobs. Untersuchungen zur Freund-Klage im Alten Testament am Beispiel von Ps 22, SBS 203*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4), 76.

42) Ibid.; C. Westermann, "Struktur und Geschichte der Klage im Alten Testament", *ZAW* 66 (1954), 44-80. 그러나 베스트러만은 심리적인 접근은 원수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43)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124.

순한 예증(illustration)으로 이해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는 원수들에 관한 묘사들이 원수들의 공격적인 폭력을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⁴⁾ 이들의 공격적인 폭력 안에 내재하고 있는 혼돈의 세력이 가난한 자들의 세계 속으로 쳐들어가 그를 파괴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⁴⁵⁾

이처럼 시편연구사는 시편에 나타나는 잔인하고 난폭한 성격을 띠고 있는 원수에 관한 많은 표현들을 양식비평의 방법론적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집중하여 왔다. 특별히 기존 연구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원수에 관한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사회적 분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난항을 거듭했다. 그 이유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원수들을 향한 미움과 복수와 공격과 적개심과 폭력의 행위들이 곤혹스럽고 충격적이며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로 다가온다는 현실이 이해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수탄원은 교리적 교훈을 제시하는 것도 성서의 윤리에 대한 요약도 아니다. 그것은 폭력의 행위자를 폭로하는 언어이다. 폭력의 희생자들이 폭력의 행위자들에게 정의의 외침을,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징벌의 외침을 말함으로써 인간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탄원이다.⁴⁶⁾

3.1. 원수들에 관한 용어의 함축적 의미

3.1.1. ‘אֹיֵב’의 의미

‘אֹיֵב’은 구약성서에서 ‘원수’의 개념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⁴⁷⁾ 키일은 그의 논문에서 원수들에 대한 명칭과 특징과 관련하여 ‘אֹיֵב’의 개념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밝히고 있다.⁴⁸⁾ 특별히 ‘אֹיֵב’은 개인 신앙을 나타내는 개인 시편(individuelle Psalmen)에서 원수를 나타내는 용어로 중요하게 사용된다(시 3:8; 6:10[11]; 7:6; 9:4, 7; 13:3, 5; 25:2, 19; 27:2, 6; 30:2; 31:9, 16; 35:19; 38:20; 41:3, 6, 12; 42:10; 43:2; 54:9; 55:4, 13; 56:10; 59:2; 64:2; 69:5, 19; 71:10; 102:9; 119:98; 138:7; 143:3, 9, 12).⁴⁹⁾

가난한 자들의 탄원에 나타나는 ‘אֹיֵב’은 매우 복잡한 원수의 형상을 나

44) P. Riede, *Im Netz des Jägers*, 377.

45) *Ibid.*, 388.

46) 에리히 쟈어, 『복수의 하나님: 원수시편 이해』, 245.

47) H. Ringgren, “אֹיֵב”, *ThWAT I* (1977), 231.

48) O. Keel, “Feinde und Gottesleugner. Studien zum Image der Widersacher in den Individualpsalmen”, *SBM* 7 (1969), 93-131; 참조, H. Schulz, “Zur Fluchsymbolik in der altisraelitischen Gebetsbeschwörung”, *N.F.* 8 (Köln: Symbolon, 1986), 39-43.

49) H. Ringgren, “אֹיֵב”, 231.

타낸다(시 9:3, 6[4, 7]; 18:17[18], 41:2, 5, 11[3, 6, 12]; 59:1[2] 69:4, 18[5, 19]; 74:10[11] 참조. 10:5, 9).⁵⁰⁾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며, 피 흘림을 즐겨 하며 웅덩이를 파고 덮을 숨겨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시 9:3[4]). ‘אֹיִבִּי’는 미움과 핍박을 통해 가난한 자를 치명적인 위기에 빠지게 하며 가혹한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가는 자들이다(시 18:17[18]).⁵¹⁾ 가난한 자의 고난에 관하여 ‘אֹיִבִּי’는 악담하며 배신을 일삼는 자들이다(시 41:2, 5, 11[3, 6, 12]).⁵²⁾ ‘אֹיִבִּי’는 가난한 자를 포함하는 자들이다(69:4, 18[5, 19]). 이들은 사자들처럼 성소에서 울부짖으며 약탈을 일삼고(시 74:10[11])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확대하는 자들이다(시 74:21[22]).

3.1.2. ‘אֹיִבִּי’의 의미

특히 레샤임(רֶשָׁעִים)으로 표현되는 가난한 자들의 원수들은 악을 행하는 불경한 자들이다(시 9:17; 10:2; 12:8; 22:23[24]; 35:3; 39:8). 가난한 자의 탄원의 대상이 되는 레샤임(רֶשָׁעִים)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비방하며 무고한 자들을 고소하는 우세한 힘을 가진 자들이다(시 7:3-5; 27:12; 35:11). 크라우스는 개인의 원수로 나타나는 레샤임(רֶשָׁעִים)에 관하여 가난한 자들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계층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었다고 주장한다(시 35:10).⁵³⁾ 실제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협하고 핍박하고 파멸시킨다(시 22:23[24]; 35:3). 이들은 악한 자들로서 “사자처럼 가난한 자 목숨을 앗아가 발기발기 찢는 자들이다”(시 10:5, 9).

그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들이며 자신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교만한 자들이다(시 22:6; 35:16; 39:8). 이들(רֶשָׁעִים)은 하나님을 부인하며(시 14), 사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기만행위를 통해서 죽음과 파멸을 가져오는 자이다. 기만과 살인을 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이다(시 31:9, 17). 그들의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 속에는 파멸뿐이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시 5:9; 10:7). 그들은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시 10:6)라고 호언장담하는 방자한 자들이다. 그들은 오만하여,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라고 말한다(시 12:4). 이들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파탄시

50) Ibid., 232-233. 개인 탄원시에서 ‘אֹיִבִּי’에 관하여 정의하기는 특별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원수에 관한 개념과 동일하게 ‘אֹיִבִּי’는 동의의 의미를 갖고 있는 ‘אָוֶן’과 같이 쓰인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51) 피터 크레이기, 『시편 1-50』, WBC 19,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0), 235.

52) Ibid., 430. 시편 41편은 많은 학자들의 경우 ‘개인 감사시’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개인 탄원시’로 분류하여 해석할 수 있다.

53) Ibid., 368.

키는 것이다.⁵⁴⁾ 레샤임(רֶשָׁאִים)은 가난한 자들을 파탄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삼고(시 10:9-10), 이를 위해 교만하여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시 10:2-4, 7-8). 가난한 자들의 원수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하며 악을 토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원수들에 관하여 “자신을 압제하는 자”(시 9:9, 12[13]), “자신을 미워하는 자”(시 9:13)로 규정하며 그들의 괴롭힘을 탄원한다.⁵⁵⁾ 가난한 자들은 악인들의 악행을 탄원한다(시 10:2-11).⁵⁶⁾ 원수들은 교만하고(시 10) 거짓되고 음흉한 자들이다(시 10:7).

3.1.3. ‘악행(רָעָה)을 일삼는 자’의 의미

가난한 자들의 원수, ‘악행을 일삼는 자’(רָעָה אִשָּׁרָה)는 특별한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 탄원시에서 ‘רָעָה’는 많은 경우 원수를 표현할 때 사용되며, 근본적으로 입체적으로 돌출되는 원수에 관한 상세한 표현을 위해 사용된다(시 5:6; 6:9; 7:15; 14:4; 28:3; 36:4, 5, 13; 41:7; 53:5; 55:4; 56:8; 59:3, 6; 64:3; 66:18; 92:8, 10; 94:4, 16; 101:8; 119:133; 141:4, 9).⁵⁷⁾

특별히 가난한 자의 탄원에 나타나는 ‘악행(רָעָה)을 일삼는 자’의 악행을 살펴보자. 가난한 자는 사회 정의를 짓밟는 원수들의 죄악(רָעָה אִשָּׁרָה)을 폭로한다(시 14:1-4).⁵⁸⁾ 이들은 악행(רָעָה)을 일삼는 자요 따라서 재판에 세워져 심판받고 죄값을 치러야 할 존재이다(참조. 시 7:12-16; 9:15-16; 35:7-8; 59:2; 69; 109; 141:10). 원수들의 위험한 행위를 폭로할 때 사용되는(시 10:7)⁵⁹⁾ ‘רָעָה’는 악의 심연을 의미하며, ‘רָעָ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출발하여 악을 행하는 원수(רָעָה אִשָּׁרָה)에 관한 반대의 표현은 정의를 행하는 자(רָעָה אִשָּׁרָה)이다(시 14:4). 가난한 자들의 탄원은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날카로운 ‘예언자들의 연대감’으로 소급하여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무시무시한 악마

54) Ibid., 313.

55) 함성국, 『시편해석』, 338. 시편 9편과의 관련성 속에서 시편 10편을 공동체 애가로 이해하기도 한다. 아크로스틱 구조를 통해 서로 연결되는 시편 9편과 10편에 관하여 연구사는 시편 9편을 10편의 서론으로 규정한다. 시편 9편과 10편은 가난한자(עני)와 원수(רָעָה)의 탄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56)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116. 특별히 인칭의 단수·복수 변화는 개인적인 원수를 넘어서 원수의 세력을 강조하고 있다.

57) K. -H. Bernhardt, “רָעָה”, *ThWAT I*, 159.

58) 시편 14편은 가난한 자(עני)에 관한 지혜 문학적이며 동시에 예언자적 전승의 언어와 신학이 지배적이다. 지혜문학에서 “미련한 자”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시 14:1).

59) F.-L. Hossfeld and E. Zenger, *Die Psalmen*, 87.

적인 특징을 갖는다.⁶⁰⁾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해하는 자들이다(시 94:4, 16). 이들은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파괴한다.

이상에서 가난한 자들의 원수들에 관한 히브리어 용어와 신학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 시편에서 가난한 자의 원수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그들의 피 흘림을 즐겨하며 웅덩이를 파고 덮을 숨겨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2) 사회적으로 권리가 없는 자들과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자들, 특별히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만하고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도모하고, 이들에게 죽음과 파멸을 가져오는 자이다. 3) 종교적인 측면에서 원수들의 악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이해를 경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마적인 특징을 갖는 자들이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와 ‘원수’의 관계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형상화 된다.⁶¹⁾

3.2. 가난한 자들의 원수 탄원

이처럼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물리적 가난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물리적 가난의 원인을 원수들의 착취와 핍박으로 이해하며 가난한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고발한다(시 14:6; 74:21).⁶²⁾ 그들은 착취자들의 교만(시 86:14)과 강포함을 탄원한다(시 54:3; 86:14).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 착취하는 원수들에 대한 복수(시 11:6; 109:6-20; 140:11)를 청원한다.⁶³⁾ 둘째로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법적 권리’(Rechtsanspruch)를 빼앗는 원수들을 고발한다(시 74:4). 그들은 거짓과 위협으로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자들을 탄원한다. 그들은 원수의 증오(시 35:19; 38:19; 41:7; 69:4; 86:17)와 살의와 중상과 모략(시 5:9; 27:12; 56:2; 59:6-7)을 탄원한다. 가난한 자들은 우매한 자의 비방과 대적들의 거짓으로부터 구원을 소망한다.

이처럼 시편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은 사회 구조가 인간을 수의성을 위한 도구로 비인간화하는 순간부터, 착취자를 폭로하는 언어로 기능

60)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21.

61) Ibid., 363.

62) 시편 74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락(1-11절)의 성전파괴로 인한 탄원과 두 번째 단락(12-17절)은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권의 찬양이며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공동체의 노래(18-23절)이다.

63) 에리히 쟈어, 『복수의 하나님: 원수시편 이해』, 이일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247.

한다. 아무런 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탄원으로 원수들의 불의에 맞섰다.⁶⁴⁾ 왜냐하면 탄원은 폭력의 희생자들이 폭력의 행위자들에게 정의의 외침을, 하나님에 대한 징벌의 외침을 말함으로써 인간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⁶⁵⁾ 이것이 가난한 자들의 탄원 속에 함의되어 있는 신학적 의의이다.

4.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4.1.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이해

4.1.1. 숨어계신 하나님

개인 탄원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 이해이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숨어계심’을 탄원한다(시 10:1, 12-13; 13:1; 22:1-2: 30:7; 42:2-3; 70:5; 74:19, 21; 참조. 88:14).⁶⁶⁾ 숨어계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당혹과 공포를 의미한다(시 30:7).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으로 경험한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며 동시에 ‘숨어계신 하나님’과 논쟁한다(시 22:1-2). 가난한 자들은 그들을 위해 일하시지 않은 채 ‘지체’하는 하나님을 탄원한다(시 22:1-2; 40:1; 70:5; 74:19, 21 참조. 13:1-3). 가난한 자들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를 방치한 하나님께 연대 의식을 촉구하며 탄원한다(시 40:1; 41:1-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논쟁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관찰할 수 있다.

크라우스(H. J. Kraus)는 하나님의 숨어계심은 그의 나타나심의 한 양상이라고 이해한다(비교. 시 50:3-6).⁶⁷⁾ 폰 라트(G. von Rad)는 ‘하나님의 숨어계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불협화음 사이에 발생하는 하나님 인식이라고 주장한다(비교. 시 10:1; 27:9; 30:7; 55:1; 104:29).⁶⁸⁾ 여기서 바르트(K. Barth)는 시편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64)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14.

65) 에리히 쟈어, 『복수의 하나님: 원수시편 이해』, 245.

66)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70.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다. 특별히 시편에서 하나님이 언어 형태를 빌어 자신을 드러내시려는 의도는 특별히 ‘이름’에 관한 신학적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다.

67) H. J. 크라우스, Ibid., 90; 참조, 이일레, “가난한 자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신정론 이해: 시편 10편을 중심으로”, 195.

68) G. von Rad, *Gottes Wirken i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4), 98.

현존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실질적 부재 또한 느낄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숨어계심에 대한 탄원을 ‘신앙의 진술’로 규정한다.⁶⁹⁾ 이처럼 시편에서 고난 받는 자들의 ‘숨어계신 하나님’ 탄원은 ‘신앙의 진술’이며 야웨 하나님 현현을 간구하는 신앙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시 27:9; 69:17; 102:2; 143:7).⁷⁰⁾

4.1.2. 얼굴을 비취 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다(시 9:12; 10:13; 25:16; 40:18; 69:30; 70:6; 72:3; 74:19, 21; 86:1; 88:16; 109:22).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얼굴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한다(시 22:24-26 [25-27]; 34:3-6, 15-17; 68:11; 69:32-33; 107:41; 109:31; 113:7; 147:6; 149:4).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시 22:23[24]).⁷¹⁾ 얼굴을 비취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고난과 탄원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며(시 9:12),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소망한다(시 9:17[18]).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가난한 자들 편에 선다는 견해는 전형적으로 예언자적이다(시 14:6).⁷²⁾ 그의 임재는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시 22:23[24]). 가난한 자들은 소망과 기대를 품고 시온으로 순례 길에 올라 성소로 도피하며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간절히 호소한다(시편 9:10).⁷³⁾

4.1.3. 착취당하는 자들의 희망과 해방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고통인 가난을

69) K.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Studienausgabe, II/I, 29 (Zürich: TVZ Theologischer Verlag, 1986), 187. 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관찰하고 생각하여 표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통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70) 참조, 이일레, “가난한 자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신정론 이해: 시편 10편을 중심으로”, 195. 더 나아가 그는 ‘신앙의 진술’, ‘숨어계신 하나님’ 탄원의 신학적 의의를 유일신 신앙의 근거 위에 제시되는 ‘신앙의 진술’이며, 이것의 신정론 문제로 규정한다. 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악인의 악행을, ‘하나님의 숨어계심’, 곧 야웨 하나님의 유기의 결과로 간주하며 탄원하고, 하나님 탄원에서 숨어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소(Anklage)의 의미는 야웨 하나님께 고난의 책임이 귀결됨을 말하기 때문이다.

71) 김이곤, “시편 탄원시의 신학 I”, 『신학사상』 48 (1985), 130. 김이곤은 시편 22편 23[24]절은 구약성서의 탄원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72) 비교. 미 3:3.

73)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68

쳐부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시 9:13, 18[14, 19], 19[20]; 10:17; 12:6; 14:6; 18:28; 22:27; 25:9; 37:11; 76:10; 140:10). 그들은 부자의 착취에서 벗어날 희망찬 미래를 노래한다(시 37:14-17; 72:4; 119:14, 36). 동시에 그들은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무리로부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희망한다(시 14:6).⁷⁴⁾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해방자이다(시 35:10).⁷⁵⁾ 그들은 ‘경건한 자들’의 변절과 하나님 신앙의 탈선으로 빚어지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를 고발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현상과 사건에 개입하기를 간구한다(시 12:2, 9). 하나님은 빈자들의 사회적 투쟁과 함께하는 분이며 그들의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간섭하고 계신다(시 74:20-22). 더 나아가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착취자들에 대한 복수를 청원하며, 하나님을 이를 듣는 분으로 고백한다(시 11:6; 109:6-20; 140:11-12).⁷⁶⁾

4.1.4. 가난한 자들의 법적 조력자

‘가난’이라는 표현의 기본적 의미에는 ‘법적권리’(Rechtsanspruch) 밖에 있는 상황이 함축되어 있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궁핍함으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⁷⁷⁾ 여기서 법의 보호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⁷⁸⁾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권리와 정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한다(시 9:12).⁷⁹⁾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가난한 자의 권리’를 서로 유기적 관계로 이해한다(시 9:12).⁸⁰⁾ 왜냐하면 만왕의 왕 ‘야웨’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법적 조력자(rechtshelfer)와 구원자로 고백한다(시 9:4, 12; 74:21).⁸¹⁾

하나님의 도움은 가난한 자들의 “모든 곤경”, 특히 불의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풀어진다(시 34:6[7]). 그러므로 “법적 지위가 열악하고 생존을

74) 예언서와 지혜서를 포함해서 살펴보면 가난의 고통이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임이 더욱 분명해진다(사 3:14). 이방인 역시 ‘가난한 자’이다.

75)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177.

76) 에리히 쟁어, 『복수의 하나님: 원수시편 이해』, 181-182.

77)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68.

78) Ibid.

79) B. Janowski, *Konfliktgespräche mit Gott*, 115.

80) Ibid., 116. 다른 하나 없이 다른 하나를 생각할 수 없다.

81)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66.

위한 싸움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웨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⁸²⁾ 예언자들이 제시한 희망과 약속 안에 다시 오실 왕, 시온의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 떡을 주시는 분이다(시 132:15).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는 분이다(시 74:4).⁸³⁾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티끌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들을 쓰레기장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이다”(시 113:7).

지금까지 가난한 자의 하나님 이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가난한 자들은 숨어계신 하나님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난다. 즉 하나님은 그들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2)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해방자이다. ‘경건한 자들’의 변절과 하나님 신앙의 탈선으로 빚어지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사회적 현상과 사건에 개입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빈자들의 사회적 투쟁과 함께하는 분이다. 그리고 그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다. 3)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법적 조력자(rechtshelfer)와 구원자로 경험한다(시 113:7; 140:12).

4.2.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 탄원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가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으로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탄원한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은 채 ‘지체’하며, 고통 받는 그들을 방치한 하나님께 연대의식을 촉구하며 탄원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얼굴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들이 당하는 착취의 사건을 폭로하며 탄원한다. 하나님께 그들의 해방을 탄원한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빈자들의 사회적 투쟁과 함께하는 분으로 경험한다. 하나님을 그들의 법적 조력자(rechtshelfer)와 구원자로 경험한다(시 113:7; 140:12).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해는 가난으로 인하여 권리를 빼앗긴 자들에게 야웨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신학적 의의

82) Ibid., 367.

83) 왕이 베푸는 공의는 때로 하나님이 베푸는 공의와 같다.

를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⁸⁴⁾ 야웨는 가난으로 압제당하는 자들의 ‘산성’이며(시 9:9), 착취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법적 조력자이며 해방자이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개인 탄원시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의 탄원의 특별한 구조를 분석하고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탄원시는 ‘자기-탄원’과 ‘하나님-탄원’과 ‘원수-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 착취와 사회적 소외와 굶주림 속에서 삶에 대한 상실감을 경험한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버림받음과 깊은 절망감을 체험한다.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 정서적 유기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의 고통을 자기-탄원으로 고백한다. 가난의 고통이 가중될수록 그들의 탄원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의 자기-탄원은 원수-탄원과 하나님-탄원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원수-탄원을 통해 자신들을 노략하며 착취하는 원수들을 고발한다. 동시에 원수들의 하나님 부인을 폭로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탄원을 통해서 얼굴을 비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들은 하나님을 착취당하는 자들의 해방자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법적 조력자로 경험한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탄원은 야웨의 놀라운 구원행위(Magnalia Dei)를 충동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동인으로 기능한다.⁸⁵⁾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탄원은 고난에 대한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로 인해 그들은 착취자로 인한 그들의 고통을 폭로한다. 그들은 사회 구조 속에서 빛어지는 가난과 사회적인 소외를 호소한다. 악인들의 중상모략을 탄원하는 데 망설임이 없다(시 14:32, 35). 실존적 생존의 위협 속에 고난을 경험한 가난한 자들의 탄원은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촉구하고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가능하다는 통찰로 나아간다.

여기서 본 논문의 목적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가난한 자의 탄원을 구성하는 탄원의 주체, ‘가난한 자’와 탄원의 표적이 되는 ‘원수’에 관한 히브리어 용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탄원의 수신자인 ‘하나님’에 관한 이해 또한 탄원의 상황이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

84) H. J. 크라우스, 『시편의 신학』, 370.

85) 김이곤, “시편 탄원시의 신학 I”, 128.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즉 ‘이스라엘 신학’의 기초를 이루어 왔다.

구하고, 우리말 번역이 매우 일률적인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기존의 번역과 같이 일률적 번역을 수용할지라도 각각의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여, 가난한 자의 탄원을 이해하는 유용한 하나의 자료와 기준을 제시하였다.

<주제어>(Keywords)

시편의 가난한 사람들, 개인 탄원시, 숨어계신 하나님, 탄원, 원수.
poor people in Psalms, Individual Lament, the hidden God, suffering, enemies.

(투고 일자: 2022년 1월 27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이곤, “시편 탄원시의 신학 I”, 『신학사상』 48 (1985), 120-147.
- 서인석,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 칠곡: 분도, 2001.
- 이일레, “가난한 자의 탄원 속에 나타나는 신정론 이해: 시편 10편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82 (2021. 12), 187-214.
- 이일레, “계약법전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를 위한 미취과담과 데바림의 어울림: 출애굽기 21장 2절-23장 12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7 (2021. 9.), 276-305.
- 이일레, “시편 109편 6-19절은 시인의 기도인가? 원수들의 저주인가?”, 『구약논단』 24 (2018. 9.), 172-200.
- 이일레, “히브리산과들의 저항과 ‘시편 언어’의 친연성(親緣性)”, 『구약논단』 23 (2017. 12.), 42-73.
- 쟁어, E., 『복수의 하나님?』, 이일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 크라우스, H. J., 『시편의 신학』, 신윤수 역,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4.
- 크레이기, P. C., 『시편 1-50』, WBC 19,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0.
- 함성국, 『시편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Barth, K., *Die Kirchliche Dogmatik*, Studienausgabe, II/I, 29, Tvz –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1993.
- Bauks, M., *Die Feinde des Psalmisten und die Freunde Ijobs. Untersuchungen zur Freund-Klage im Alten Testament am Beispiel von Ps 22*, SBS 203,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3.
- Bernhardt, K. -H. “אֲנִי”, *ThWAT I*, 151-159.
- Birkeland, H., *Ani und Anaw in den Psalmen*, Oslo: Dybwad, 1892.
- Causse, A., *Les “pauvres” d’Israel*, Strasbourg: Librairie Istra, 1922.
- Collins, T., “Decoding The Psalms. A Structural Approach to the Psalter”, *JSOT* 37, (1987), 41-60.
- Crüsemann, F., “Im Netz. Zur Frage nach der „eigentlichen Not“ in den Klagen der Einzelnen”, R. Albertz, F. W. Golka and J. Kegler (Hgg.), *Schöpfung und Befreiung*, Stuttgart: Calwer, 1989, 139-148.
- Erman, A., *Die Religion der Ägypter*, Berlin: De Gruyter, 1934.
- Gerstenberger, E. S., “אֲנִי”, *ThWAT VI* (1977), 247-270.
- Gunkel, H., *Einleitung in die Psalmen: Die Gattungen der religiösen Lyrik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5.
- Gunkel, H., *Di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
- Hossfeld, F. -L. and Zenger, E., *Die Psalmen I*, J. G. Plöger and J. Schreiner, eds., Die Neue Echter Bibel 29, Würzburg: Echter, 2002.

- Janowski, B., *Konfliktgespräche mit Gott: Eine Anthropologie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Theologie, 2003, 124.
- Keel, O., *Feinde und Gottesleugner: Studien zum Image der Widersacher in den Individualpsalmen*,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69.
- Kraus, H. J., *Theologie der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Verlage, 2003.
- Lohfink, N., “Was wird anders bei kanonischer Schriftauslegung? Beobachtung am Beispiel von Ps 6”, *JBTh* 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Verlage, 1988, 29-53.
- Mowinkel, S., *Psalmen Studien 1: Åwän und die individuellen Klagepsalmen*, Videnskapsselskapet: Kristiania, 1921.
- Mowinkel, S., *Psalmen Studien 6: Die Psalmdichter*, Videnskapsselskapet: Kristiania, 1924.
- Neumann, H. A., *Zur neueren Psalmenforschung*,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Abt, 1976.
- Rahlf's, A., *'Ani und 'Anaw in den Psalmen*, Oslo: Dybwad, 1892.
- Riede, P., *Im Netz des Jägers. Studien zur Feindmetaphorik der Individualpsalmen*, Wissenschaftliche Monograph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Band 85,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Ringgren, H., “אָוִיבִי”, *ThWAT I* (1977), 231.
- Schulz, H., “Zur Fluchsymbolik in der altisraelitischen Gebetsbeschwörung”, *N.F.* 8, Köln: Symbolon, 1986, 35-59.
- von Rad, G., *Gottes Wirken i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4.
- von Rad, G., *Predigt-Meditatio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 von Rad, G.,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 Band 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9.
- Weißmann, H., “Armut”, *TRE*, Berlin; New York, 1979, 69-72.
- Westermann, C., *Der Psalter*, Stuttgart: Calwer Verlag, 1967.
- Westermann, C., “Struktur und Geschichte der Klage im Alten Testament”, *ZAW* 66, (1954), 44-80.

<Abstract>

Research on the Lament of the Poor People in Individual Psalms

Il-Rye Le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research analyzes the special structure in the lament of the poor which appears in the psalms of individual laments, and observes its theological significance. The psalms of lament from the ones who are suffering from poverty consist of *self-lament*, *God-lament*, and *enemy-lament*.

The poor experience a sense of loss of life amid economic exploitation, social alienation, and hunger. At the same time, the poor also experience abandonment and a deep despair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like the fear of abandonment as well as emotional abandonment. But it does not stop there. They confess their pain of poverty as a self-lament. The worse the poverty gets, the deeper they lament. Here, self-lament gets connected to the God-lament. The poor meet God through the God-lament, and God lightens up their faces. They meet God as the one who frees them from poverty as well as the legal helper of the poor. In this way, the lament of the poor functions as the most direct and essential driving force that induces YHWH's astonishing *Magnalia Dei*.

Therefore, the lament of the poor changes their stance of suffering, and they disclose the sufferings caused by exploitation. They lament about the poverty and social isolation caused by social structure. The poor do not hesitate to lament about the enemies' affront (Ps 14:32, 35). The lament of the poor who experienced suffering amid the existential danger accelerates God's act of salvation, and leads to the insight that liberation from poverty is poss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also has another important intention: Although the Hebrew terms referring to "the poor" — the subject that shapes the lament of the poor — and "the enemy" — the target of the lament of the poor — appear variously, and the understanding of "God", the recipient of the lament appear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r characteristics of the lament, the Korean translation is overly uniform.

Thus, this research presents one useful data and standard to understand the

lament of the poor by analyzing the theological intention of each term although it accepts the existing translation and its uniform translation.